화폐의 역사적 발전과 디자인

A Study of Historical Developments and Design of Money

남 세 현, 조 성 환
충남대학교 디자인창의학과

Nam se-hyun, Jo seoung-hwan
Depart of creative desig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화폐는 인간의 경제 활동과 함께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화폐 사용에 대한 기능성 외에 유형적인 특징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상징이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폐의 디자인적인 특징에 따른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론

화폐가 등장한 이 후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화폐 주조술이 발전되면서부터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화폐에 적용된 문양에는 단순한 의도 외에 국가가 갖고 있는 의식이나 사상 등이 표현되기 마련인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보다 정밀하면서 복잡한 것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기원전 3200년경 수메르에서는 동전에 다산과 풍요, 생과 사를 상징하는 상징을 새겨 넣었다. 또한 동양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엽전의 동그란 모양은 양(하늘)에 해당하고, 네모난 구멍은 음(대지)에 해당한다. 이는 위대한 어머니의 수태능력이 돈의 가운데 구멍과 닿아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1)]

화폐가 갖는 의미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런 전통은 현대적인 화폐에서도 분명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화폐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형의 전자화폐들이 차츰 영역을 확장해 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전자화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상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화폐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 개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화폐의 사회철학은 화폐의 경제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화폐가 갖는 의미를 사고하는 것이다. 화폐의 사회학적 고찰은 사회관계에서 화폐가 수행하는 역할을 고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으로 인산의 사회관계에서 왜화폐가 생겨났는지, 아니 오히려 화폐가 인간관계의 필수불가결한 매개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일이다.[2)]

탈켓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1979)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화폐는 소통과 상호작용 매개하는 일반적인 상징적 매개물이며, 화폐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의 각 부분들을 통합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화폐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며, 상징적 매개물이기에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상품화폐론으로 화폐 문제를 다루었다. 금은 보편적 가치로서 역할을 하고, 오로지 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만 화폐가 된다. 귀금속이 가치 척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귀금속을 채굴하고 또 주화로 주조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투하되었기 때문이며, 그 투하된 노동의 양은 "똑같은 양의 노동이 응축되어 있는 다른 그 어떤 상품의 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정의하였다.

짐멜(Georg Simmel, 1858~1918)은 화폐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고찰을 『돈의 철학(The Philosophy of Money)』에서 다루었으며, 화폐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화폐가 어떻게 근대적 삶의 본질을 표현하는 가를 이야기하였다.[3)]

Ⅲ. 화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디자인

1. 상품화폐

물물교환시대에 사람들은 보다 특별한 재화를 이용하

1) 버나드 리테어, 강남규 역, 돈 그 영혼과 진실, 참솔, 2000년

2) 이마무라 히토시, 이성혁 역, 화폐 인문학 괴테에서 데리다까지, 자음과 모음, 2007년

3) 제프리 잉햄, 홍기빈 역, 돈의 본성, 삼천리, 2011년

여 경제활동을 하였다. 상품화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달걀, 가죽, 곡물, 가축, 소금, 쌀, 대추야자, 아몬드, 카카오, 야자열매, 설탕, 차, 동물 뼈, 조개, 장신구, 화살촉, 도끼 등이었으며, 식량이나 담배와 차 등 기호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2. 금속화폐

금속을 돈으로 최초 사용했던 역사 기록은 BC 3천년이며, 실제 발견된 세계최초의 금속화폐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청동으로 주조된 농기구 모양의 포전(布錢)과 칼 모양의 도전(刀錢)이다. 진정한 주화들이 맨 처음 나타난 건 기원전 640년 무렵 서아시아의 리디아(터키 서부)로 왕조의 상징이었던 사자 머리가 새겨졌으며, 금 80퍼센트와 은 20퍼센트를 합성하고 일렉트럼(electrum)이라고 불렀다.

▶▶ 그림 1.기원전 7세기 리디아 주화와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은화

BC 6세기 그리스 아테네는 지혜의 상징인 부엉이와 아테네인들의 것을 상징하는 A, TH, E를 화폐에 새겨 넣었으며, BC 1세기까지 표준 도안으로 활용하였다. 초기 로마시대에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신화나 신을 넣은 은이나 동을 이용한 주조 화폐를 운영하였으며, 제국의 확장과 새로운 군주제가 등장하면서 황제의 초상이나 그의 직계가족의 초상을 새겨 넣었다.[4)]

3. 신용화폐

서기 11세기 경 중국의 송(960~1279)나라에서 경제의 발달로 주화가 부족해지면서 정부에 의한 최초의 법정 지폐인 교자(交子)를 발행하였다. 이어 13세기 원나라에는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엽전을 억제하고 교초(交鈔)라는 지폐를 공식 통화로 삼아 재정문제를 해결했다.
19세기 청나라에는 당시 유럽과 같은 근대적인 지폐인 은행권을 발행하여 유통하였다. 화폐의 역사 측면에서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을 통하여 중앙은행을 통한 화폐발행이라는 현대적인 은행제도가 확립되었고 당시 개발도상에 있던 서유럽 세계 전반에 걸쳐서 복제되어 발전되었다. 근대화폐는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경제적인 붕괴의 산물이자 정치적인 변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전쟁 수행 기금을 조성하는 동기를 제공하였으며 선전선동을 위한 유용한 매체가 되기도 하였다.[5)]
〈그림 2〉1979년 왕의 패위 이후, 아야툴라 호메이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군중을 통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림 2.1981년 발행 이란은행 5,000리알

Ⅳ. 결론

화폐는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을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발전하였다. 화폐의 발전 초기인 물물교환 단계에서 경제활동의 수단으로써 조개와 같은 대상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가 문화적으로 성숙해 나감에 따라 화폐에 문화적인 가치가 접목되었다. 실제로 세계 최초의 금속화폐인 포전은 농기구를 모방한 것으로 농경사회로 접어든 시대적인 상황과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포전은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시대적으로 전쟁과 같은 혼란한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부엉이를 새겨 넣은 주화를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부엉이는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학문의 상징이며 지혜의 여신으로 신성시 여겼기 때문이다.
화폐의 문화적인 가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나폴레옹 전쟁, 미국의 독립전쟁, 제 1, 2차 세계대전 등은 인간의 삶 및 화폐 속에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의 형상까지도 국가적인 목적에 따라 변화하였다.
2009년 1월 3일 P2P기반의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리플, 에테리움과 같은 디지털 머니가 이용되고 있다. 화폐의 역사에서 보면 유형화폐가 갖는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가치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형의 디지털 화폐에 전통적인 화폐가 갖고 있는 유형의 문화 가치를 접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버나드 리테어, 강남규 역, 돈 그 영혼과 진실, 참솔, 2000년
[2] 이마무라 히토시, 이성혁 역, 화폐 인문학 괴테에서 데리다까지, 자음과 모음, 2007년
[3] 제프리 잉햄, 홍기빈 역, 돈의 본성, 삼천리, 2011년
[4] 송인창 외, 화폐이야기, 부키, 2013년
[5] 캐서린 이글턴 외, 양영청 외 역, MONEY 화폐의 역사, 말 · 글빛냄, 2007년

4) 송인창 외, 화폐이야기, 부키, 2013년
5) 캐서린 이글턴 외, 양영청 외 역, MONEY 화폐의 역사, 말·글빛냄, 2007년